

여름 무더위 날릴 ‘장흥 물축제’ “즐거움이 팔팔팔”

26일부터 탐진강·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지상 최대 물싸움·퍼레이드·EDM 파티
태국 송크란 팀 연계 ‘글로벌 축제’ 도약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물축제는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팔팔팔’을 슬로건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물놀이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지상 최대의 물싸움, 수중 줄다리기, 워터 EDM 파티, 황금물고기 잡기, 어린이 전용 놀이장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축제의 시작은 개막일인 26일 오후 1시 ‘살수 대첩 거리 퍼레이드’(사진)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군민회관에서 중앙로를 지나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는 태국 송크란팀과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등이 함께해 글로벌한 분위기를



를 더한다. 하이라이트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매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DJ 음악과 함께 펼쳐지며 물총, 물풍선, 물대포가 뒤섞인 뜨거운 대결이 벌어진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강화됐다. 수중 축구장, 미로, 슬라이드, 수영장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 천연 하류 주차장에 설치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황금물고기 잡기는 매일 오후 3시 진행되며,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는 체험형 이벤트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우든 보트, 바나나보트, 팅크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체험도 마련돼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축제의 열기는 밤에도 이어진다.31일에는 윤도현 밴드, 육중완 밴드, 노브레인 등이 참여하는 장



흥 락페스티벌이 열리며, 8월1-2일에는 강렬한 EDM 파티 ‘워터 비트’가 DJ뮤즈, 펜타곤 키노, DJ 김성수(울) 등의 출연진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정남진 강변음악축제, 장흥 POP콘서트, 주민자치 경연대회,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축제장을 수놓을 예정이다.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장흥 소고기·키조개·표고버섯을 활용한 ‘삼합 페스타’, 지역 특산물

을 활용한 ‘슬러시 페스타’가 열려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삼백초 발효액, 매실청, 청태전 차 등을 활용한 여름 음료도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며 “올해도 시원하고 안전한 물축제에서 소중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노형록 기자

‘보랏빛’ 동화면 램프공원, 야경 명소로 거듭난다

道 경관조성 대상지 선정...10억 확보

장성군 동화면 동화나라 베베나축제의 무대인 램프공원이 ‘전남도 경관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해당 공모는 매력적인 경관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전남도 경관 모델’을 발굴·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정체성과 안전성, 기능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경관에 적용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한다. 동화면 램프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동화나라 베베나축제’가 열려 주목받은 장소다. 유유지에 가까웠던 곳을 마을 주민

과 공무원들이 꽃을 심고 가꾸 뜻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사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램프공원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해 낮에만 아름다운 장소가 아닌, 밤에도 찾아가고 싶은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그날막, 의자 등 부족했던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도 배치한다.사업 시행 기간은 2년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랏빛 베베나와 화려한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장성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동화 속으로 풍덩~” 여수 디오션리조트, ‘앨리스 전시·신비동물원’ 새 단장

오는 19일부터 특별전시장서
전시 콘텐츠·체험형 동물원도

여수 디오션리조트가 새로운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남해안 대표 해양복지리조트에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10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이달부터 문화·예술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사진 왼쪽), ‘아쿠아가든&신비동물원’(오른쪽) 등 두 개의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먼저 루이스 캐럴의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탄생 16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앨리스, 마이 워터랜드’가 오는 19일부터 약 9개월간 디오션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존 테니얼의 오리지널 삽화 초간본과 세계 각국의 화가 빈티지 컬렉션,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구성돼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앨리스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이색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앨리스가 돼 신비로운



모험을 즐기고, 어른들은 동화 속 장면을 통해 잊고 지낸 감성을 되새기며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이달 중 오픈 예정인 ‘아쿠아가든&신비동물원’은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실내 체험 공간이다. ‘아쿠아가든’은 수생 생태계를 예술로 표현한 전시 공간이며, ‘신비동물원’은 수달, 펭귄, 카피바라 등 총 31종의 동물들이 서식하는 체험형 동물원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단순 관람을 넘어 고급 커피, 음료, 베이커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도



심 속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유광현 디오션리조트 회장은 “기존 인프라에 전시와 체험 중심 콘텐츠를 더해 단순한 숙박과 여가를 넘어 스토리가 있는 문화리조트로 재도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서 다양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지속적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텐츠 확장은 디오션리조트의 브랜드 경쟁력은 물론, 여수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의회, 주요사업 대상지 현장점검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 현장 등

담양군의회는 “최근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민 관광자와의 연계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추월산과 담양댐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걷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정(총사업비 140억



원)된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현재는 교량(미르교, l=330m) 건설과 데크쉼터·부대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당초 용면 도림리 산28번지 일원으로 계획했던 사업 위치가 용면 월계리와 도림리 일원으로 변경된 과정에서의 사유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새 관광자원 구축에 따른 기존 추월산 지구 및 용마루길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은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계획했다”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 산동 ‘나들이 워터파크’ 무료 개장

내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구례군은 10일 “오는 12일부터 8월24일까지 산동면 ‘나들이 워터파크’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나들이 워터파크’는 지리산온천관광지 나들이장터에 위치하며, 1일 약 1천명 이상을 수용 가능한 규모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시설 면적 약 1천56㎡에 지리산반달곰을 테마로 종합 놀이대, 바닥분수 등 10종 26개의 물 놀이기구와 화장실, 샤워실, 그늘막, 피크닉테이블 등 부대시설도 완비돼 있다. 무료 운영 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간 당 50분 운영 후 10분 휴식으로 하루 총 7회 운영된다. 구례군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



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아쿠아슈즈를 착용하거나 맨발로만 입장 가능하다. /구례=임종길 기자

‘어르신 복합복지시설’ 순천 북부복지타운 첫 삽

여가·건강 관리·치매요양 등

순천시가 북부복지타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서면 선평리 718번지 일원에서 ‘북부복지타운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원로단체·시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북부복지타운은 어르신 여가와 건강관리, 치매요양까지 아우르는 복합복지시설로, 총공사비 214억원을 투입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립 노인쉼터(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3천348㎡)

와 북부복지관(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2천565㎡)으로 조성된다. 공립노인쉼터는 장기(92인)·단기(20인) 요양시설을 갖춰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부복지관은 동시 400명 수용 규모의 여가·복지 프로그램 공간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순천 북부권에 어르신 돌봄과 여가, 건강이 어우러진 복지 인프라가 마련돼 매우 뜻 깊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장기 기자

고흥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내달 개시

섬 주민·관광객 생필품·의약품 등

고흥군은 10일 “오는 8월 초부터 도양읍 섬 지역(특랑도, 상·하화도)과 거금해양낙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며, 고흥군은 드론 배송 기반 마련을 위해 배달 웹 플랫폼과 배송거점 4개소, 배송점 11개소를 구축했다. 주민과 관광객은 전화 또는 배달 앱을 통해 배송 거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생필품, 음식,

낙시용품 등을 주문할 수 있다. 특히 도서 지역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해 9-10월 특랑도와 상·하화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배달 웹 가입·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이어 이달 말에는 실제 드론 배송 시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섬 주민은 드론 배송 도입으로 생필품·의약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고, 관광객은 공원 등지에서 식료품·낙시용품을 간편히 주문할 수 있어 편의성과 체험 요소가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 /박현진 기자